

聾齋歌辭小考

—「龍齋雜詞」紹介를 중심으로—

權 泰 乙

〈차례〉

- | | |
|---------------|----------------|
| I. 머리말 | 2. 體 裁 |
| II. 본 말 | 3. 收錄作品 一覽 |
| 1. 著者의 家系와 生涯 | 4. 〈還痕詞〉의 批判精神 |
| 1) 家 系 | III. 맷는 말 |
| 2) 生 涯 | |

1. 머리말

선인들이 남긴 문학 유산은 후진들이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학계에 널리 알릴 의무가 있다. 더구나, 지방화 시대를 맞아 한 지역에 몸담은 사람들로서는 일차적으로 문학연구의 바탕이 되는 자료의 집성에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할 시기라고 본다. 과거의 자료수집이 有名人 중심 내지 門閥 중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作品 중심의 자료 발굴로서 無有名이거나 寒微·閭閻을 선입견으로 지녀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본 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聾齋 張信綱(1779~1856)의 〈聾齋歌辭〉는 「聾齋雜詞」에 수록된 한글가사인데, 저자인 聾齋는 金陵 출신의 무명 선비로 묻혀져 왔다. 당대에는 인근 士友間에 隱德養性하는 선비로 알려졌지만, 鄉史에서조차도 이 분의 진면목을 소개하는 데 인색하였다. 「聾齋

雜詞」의 발굴은 저자의 6세손 張塽成氏가 金陵鄉土史編纂委員 李根龜氏에게 향토사 자료로서 제공함에 의하여 비롯되었다. 필자가 본 잡사집을 보았을 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을 살다간 무명 선비의 가사로서는 일견하여 급변기의 사회상을 여실히 알려 준 辭意 하나만으로도 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었다.

본 고에서는 우선 「蠶齋雜詞」의 저자와 그 체재, 수록 내용을 소개하며 보다 이 가사집의 일면을 소상히 소개하는 의도로 한글가사〈還癢詞〉한 편을 주해하여 그 내용의 개략을 살피기로 한다.

II. 본 말

1. 著者의 家系와 生涯

1) 家 系

「蠶齋雜詞」의 저자인 張信綱은 仁同張氏 凤願派의 후예인 父張漢杰과 母海州吳氏의 第三男으로 金陵郡 大德面 蓮花里에서 1779년(正祖 3年·己亥)에 태어나 이웃인 德山里에서 1856년(哲宗 7年·丙辰)에 작고한 선비로 字는 尤五요 自號는 蠶齋였다. 이에, 그 행적을 알만한 기록이 없어 世譜와 몇 記文을 종합해 저자를 소개한다.

1世는 張金用(三重大匡神護衛上將軍)이고 17世 張嫡孫(御侮將軍忠順衛)의 제2자인 張 潛(1497~1552)이 凤願派祖다. 張 潛의 호는 竹亭인데 靜庵 趙光祖의 문인이며 晦齋 李彥迪과도 도학을 강마한 큰 선비로, 아들 張崑(1525~1581·參議)이 6형제를 두어 가문의 명성을 크게 떨친다. 말이 張天翰(1551~1599)은 호가 臥川으로 벼슬길을 버리고 林泉에 은거하였는데 文章과 德行으로 세인으로부터 先生의 칭호를 받았고, 그의

詩가 「仁同邑誌」에 수록되었다. 2남 張景翰(1554~1627)은 호가 慎巖으로 主簿였는데 孝誠이 지극하였고, 3남 張光翰(1561~1624)은 호가 自醒亭으로 역시 과업을 버리고 독서에 전념하여 文章과 操行으로 사람의 추승을 받았다. 4남 張龍翰(1564~1599)은 호가 岐村으로 문재가 뛰어나 경상감사의 순시시에 白日場에서 八歲文童의 명성을 얻었고, 栗谷 李珥의 문하생으로 性理學에도 많은 저술을 남기었다. 5남 張鳳翰(1566~1644)의 호는 齋翁인데 寒岡 鄭述와 旅軒 張顯光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역시 文章 道德으로 사람의 추승을 받았고, 인동으로부터 星州로 이거하였다. 6남 張鴻翰(1571~1594)은 일찍부터 文章으로 득명하였으며, 智略과 圖略이 뛰어나 임진난에는 창의하여 큰 공을 세우고 진중에서 전사하였는데, 이 분이 仁同張氏 凤頽派 중의 金陵派祖가 된다. 공의 증손 張碩志(1650~1726)는 호가 雙湖齋로 文詞가 賚富하여 그의 시가 鄉史에 올랐으며, 이 분의 제4자인 張允立(1694~?)은 호가 道庵이며 음직으로 御侮將軍이 되었고, 文章에 뛰어나 門下에서 문학으로 성취한 사람이 많았다. 이 분이 저자의 5대조이며, 증조 張重成(1659~1704)은 通訓大夫에 올랐으나 이하는 현달한 이가 적다. 이상의 가계를 도식하면,

1世 仁同張氏金用(上將軍) → 17世 嫡孫(御侮將軍) → 18世 潛(鳳頽派祖·竹亭·靜庵門人) → 19世 崑(參議·有志節) → 20世 鴻翰(金陵派祖·有文名·樹忠節) → 23世 碩志(雙湖齋·有文名) → 24世 允立(道庵·御侮將軍·有文明) → 25世 希堅(士人) → 26세 重成(通訓大夫) → 27세 元大(士人) → 28세 漢杰(士人) → 29세 信綱(字允五·號聾齋)〈仁同張氏世譜券一〉

이상과 같다. 이 가계로 보아, 聾齋는 정신적으로 忠節家의 후손이란 자긍과 책무를 지녔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면면히 이어 온 文翰家의 후예로서 천부적인 文才를 타고 났다고 하겠다. 특히 그의 한글가사 중에서도

부정과 부조리가 횡행하는 당대 사회의 퇴폐상을 좌시할 수 없어 고발과 비판을 서슴지 않은 작품을 남긴 사실도 타고난 가문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볼 수 있다.

2) 生 涯

蠻齋 張信綱(1779~1856)은 조선조의 후기에 태어나, 점차로 외세의 문화적·물리적 압박이 가중되어 개방이 불가피하였고, 국내적으로도 실학사상의 점고와 유교사상의 동요가 극심하던 혼란기를 살았다. 더구나, 용재의 만년기는 내환으로서 가뭄과 수해의 천재지변이 잦아 질병과 기근이 끊임 해가 없었고 세도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은 三政의 문란으로 도탄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불행하게도 저자의 문집을 일실하여 생애를 소상히 밝힐 문헌이 미비하다. 이에, **蠻齋**의 일생담이라 볼 수 있는 〈自歎辭〉부터 먼저 살피기로 한다.

蠻齋는 입신양명하여 가성을 떨치려 했으나, “八字에 科星업고 四柱에 官星업셔 / 工夫六年 제유되야 너의죄악 지중흐야 / 天喪을 엄죠흔니 家勢도 영체흐다”라고, 6세에 아버지를 여의게 된 사실과 가운이 기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20대 초반에는 아동을 모아 舌耕(書堂)으로 지내려니 “金哥兒 李哥童니 六七名 되오나마 / 學才도 전니업고 口才도 전니업네 / 一句詩 半行書를 限一朝 빙와 낸다 / 青春에 少年괴로 獄中갓치 갓쳐안 족 / 이 근고 이 고상은 비흘되가 전의업다 / 肚脹한 연무괴는 時時로 피여 나서 / 胸中에 병이되네 이것흘것 아니로다”라고 노래하였다. 청춘에 생계를 위해 서당을 경영한다는 것은 바로 새장에 갇힌 심정이었음을 이같이 토로하였고, 이후는 作錢길에 올라 介上浦에 가서 소금도 받아 팔기도 하고 24세 때인 1802년(壬戌年)에는 馬上浦에 가서 소금도 받아 팔기도 했으며, 33세 때인 1811년(辛未年) 가을에는 약초를 팔러 全州를 왕래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南草(담배)를 팔러 “京城으로 올나갈계 西亂에 질

이 익혀 / 漢江을 못건네고 길리결리 산비 훈니 / 甲利샤 되데만는 嚴冬雪호
 원횡여에 / 路독이 병이되냐 八九十日 신음 훈니 / 이겨신들 훌거신냐 다시
 훌것 안니로다”라고 노래하였다. 이 때는 龍岡人 洪景來가 난을 일으킨
 해로 이때에 이미 시골의 殘班 후예들도 상업에 종사했음을 알려 준다.
 이 뒤로도 생계를 위해 나막신도 만들어 팔고 골신도 만들어 팔기도 했
 으나 결국 다 실패하고, “草야에 生長한 야 닙신냥명 못훈후계 / 日出죽 日
 입식니 寒士의 소업이다”라고 장삿일을 포기하고 본래의 업인 농사에 전
 념하여 “不飢불훈 훈눈워시 太平인가 훈노라”고 끝을 맺었다. 이 가사의
 내용으로 보면 20대 초반에 잠시 서당 경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상업길에 나섰으나, 역시 실패하여 이후는 선
 비로서 농사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궁벽진 시골의 가난한 선비가
 젊은 날의 한 때를 상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作錢의 성패 여부보다도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혔다는 데에 가사작가였던 저자에게는 소중한 체
 험이 아닐 수 없었다. 시기 질투가 성행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던 사
 회상의 寓意的 批判은 한글 가사 〈指路歌〉나 〈烏鵲爭隣詞〉를 비롯해 한
 문장의 〈牛馬爭功論〉·〈鶴犬爭功論〉 등에 잘 나타난다.

또한, 蠶齋의 생애는 〈蠶齋吟〉으로도 응축되었는데

幽區深處幸得蠶 그윽한 땅 깊은 곳이라 요행히 귀먹었어도
 非病非塞又非真 병도 아니요 막힘도 아니요 또한 사실도 아닐세.
 千重大嶺遠城市 천 겹으로 산에 막혀 시장과는 면데
 一帶清湖滌置塵 에워싼 맑은 호수 속세 티끌 씻었네.
 性愚豈有仁智交 천성이 어리석으니 어찌 仁智人과 교섭하며
 家貧曾無遠方親 계다가 가난하니 먼뎃 벗 찾을 리 없네.
 所求平生但溫飽 평생에 구하는 바는 따뜻함과 배부름뿐
 日與農談數家隣 날로 두셋 이웃과 농사얘기로 지내네.

라고, 일상의 생활을 요약하고 다시 自號에 龐字를 사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대저 귀머거리龐 한 자를 사람들은 다들 병이라 여기나 나는 홀로 아름답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귀가 먹은즉 사람들이 비록 선악 시비를 다투나 내게는 들림이 없는 까닭에 남에게 전할 것이 없으며, 사람들이 비록 장단과 과실을 다투나 내게는 들림이 없는 까닭에 남에게 전할 것이 없다. 남의 악담과 폐욕이 절로 내 몸에 미치지 않으니 몸은 이로써 편안하고 마음은 이로써 바르게 되어 집에 있거나 밖에 나가거나 의리에 합당치 않음이 없다.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남에게 욕을 당함도 내 입 때문이요 남에게 낭패를 당함도 내 혀로 말미암음이니, 龐이란 한 글자를 굳게 지켜 놓지 않았기에 남들이 다 낭패를 당하고 욕을 보더라도 나는 젊어서부터 늙음에 이른 오늘까지 욕을 본 일도 낭패를 당한 적이 없다. 이로써 보면, 龐이란 글자의 뜻이 어찌 심오하고 아름답지 않으랴!”(夫龐之一字 人皆謂病也 而我獨謂美也 何者 龐則人雖有善惡是非 我無聞 故不言傳於人 人雖有長短過失無聞 故不言傳於人 人之惡談悖辱 自不及身 身以此而自安 心以此而自正 所居所到 無不合宜 豈不美哉 逢人之辱 由我口而逢也 見人之敗 緣我舌而見也 一龐之字 固守勿失 則人皆見敗逢辱 而我則自少至老 無辱無敗 以此觀之 則龐字之意 亦豈無深且美耶)

짐짓 귀머거리가 되어 逢辱見敗를 면하려 했다고 했으나 ‘善惡是非 長短過失’로 다투는 세속의 아귀다툼을 차마 들을 수 없었음을 逆으로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심산 벽촌에서조차도 귀머거리로 살아야 했던 저자의 심중에는 젊은 날 대처를 돌며 체험했던 사회적 악상이 항상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에서 저자의 생애 중 몇 행적을 살펴 보았다. 이들을 종합 정리하면, 龐齋 張信綱은 조선조 말기인 1779년 금릉군 대덕면 연화리에서 태어나, 외적으로는 강대국의 정치·경제·문화의 개방을 강요당하기 시작한

시기요 내적으로는 천재 이변의 빈발로 질병과 기아가 끊임 해가 없었으며, 게다가 위정자들은 세도정치에 급급하고 탐관오리가 판을 쳐 三政의 문란이 최악의 경우로 치닫던 혼란기를 체험하였다. 이같은 와중에서도 비록 궁벽진 곳의 한사로 지냈을망정 爲人之心은 버릴 수 없어, 濟世에 일조하려는 마음을 國漢文詩歌로 표현하며 1856년 78세를 일기로 같은 면의 덕산리에서 별세하였다라고 하겠다.

2. 體 裁

용지는 韓紙인데 겉표지에는 冊名이 없으나 文洪範의 〈湖亭和韻〉에서 「聲齋雜詞」임을 알 수 있다(다음 항에서 상론). 책의 크기는 세로 21cm, 가로 18cm인데 一面에 쓴 한글 歌辭는 上下段 각기 3·4 내지 4·4조 12句씩 24句로 되었고, 筆寫本(6세손 張浚成氏는 저자의 親筆本이라 하였으며 종이의 퇴색으로 보아도 이 증언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으로 서체는 楷書, 대체로 단정하며 정정한 곳은 많지 않다. 작품을 실은 총 면수는 135面이고 첫 머리의 한글가사는 앞부분이 낙장이라 失題나 몇 장이 떨어졌는지 알 수 없고 또 그 앞쪽에는 다른 작품이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 잡사에는 한글가사 15편과 漢詩文 19편 그리고 타인의 和韻詩 · 序文 11편을 수록하였다.

3. 收錄作品一覽

이 항에서는 「聲齋雜詞」에 수록된 작품을 총망라하여 일람표로 작성한다. 앞 란에는 일련 번호를 명기하고, 따로 본 집에 수록된 차례대로 번호를 달았다.

번호	작품명	표기	장단	수록 차례	제작 년대	내용개요	비고
1.	(失題)	국한문	3·4, 4·4調 162句	①	1836 丙申 (恒產有體)	기근으로 가족이 이산하는 참상	도적횡행· 전국 수재
2.	勸學歌	-	- 92句	②	未詳	學問권장	-
3.	勸農歌	-	- 110句	③	-	권농	-
4.	財物與受歌	-	- 42句	④	-	治產에는 與受가 분명해야	-
5.	修身訓	-	- 194句	⑤	-	齊家·禁酒色·禁論人·活人 등	-
6.	龜城記	-	- 164句	⑥	-	金陵 龜城 전역의 경관을 지명으로 노래	-
7.	樂憂記	-	- 148句	⑦	-	知禮地靈은 좋은데 還上이 극심	-
8.	還瘼詞	-	- 122句	⑧	-	환상의 고향로 농촌황폐·유리걸식	-
9.	作錢還別曲	-	- 100句	⑨	-	무너진 石峰을 치우는 고역·借還 의 二重苦	10月에 바위산이 무너짐
10.	自歎辭	-	- 180句	⑩	-	1784·1802·1811·이후의 생활담	洪景來亂 체험
11.	老人歎	-	- 148句	⑪	-	노후 고독, 인생 무상	-
12.	指路歌	-	- 148句	⑫	-	小路(利祿)와 大路(仁義) 변별	-
13.	(失題)	-	- 98句	⑬	1851 12·辛亥	환곡·환전의 고통을 덜어준 목사와 현감 찬양	지례현감徐容淳 (제암1850~1853)
14.	一邑同樂詞	-	- 66句	⑭	1852 徐容淳	현감 선정(환상고 제 壬子 감) 찬양	-
15.	烏鵲爭隣詞	-	- 216句	⑮	未詳	이웃끼리 화학을 권유	-
16.	壁齋吟漢文	7言律十序	未詳	⑯	귀여거리로 사는 일이 현명	-	
17.	誠酒	- 4言詩	未詳	⑰	술경세	-	
18.	誠忿	- 說	분노를 참자	⑱	-	-	
19.	仁義禮智	- 說	仁·義·禮·智·孝·悌·忠·信	⑲	-	-	
20.	名山湖記	- 記	龜齋에서의 養德修道	⑳	-	-	
21.	追悔	- 篇	배움·색·술·농사 등의 잡언	㉑	-	-	

22.	翫修道山歌	-	5言絕	㉒	-	修道山 완상	-	-
23.	解論	-	論	㉓	-	陰陽理致에 순응하는 사람	-	-
24.	天地人論解	-	-	㉔	-	三才論	-	-
25.	誠子孫書	-	誠書	㉕	-	자손 훈계서	-	-
26.	牛馬爭功論	-	論	㉖	-	자기 공만 내세음을 경계(화 락관유)	-	-
27.	鷄犬爭功論	-	-	㉗	-	-	(隣愛勸誘)	-
28.	祭文亡室	-	祭文	㉘	1852	祭亡室文	-	-
29.	和曜極窩韻	-	7言律	㉙	-	和韻詩	-	-
30.	挽辭	-	挽辭	㉚	-	挽辭	-	-
31.	挽狀	-	挽詞	㉛	-	挽詞	-	-
32.	德潤身	-	說	㉜	-	勸德涵養	-	-
33.	富潤屋	-	-	㉝	-	勸修正心	-	-
34.	省心修身	-	-	㉞	-	勸忠孝心 涵養	-	-
35.	德山無知翁漢文和韻序	漢文	序	㉟	-	聲齋의 生活相	李珍國	-
36.	愚學齋和韻序	-	-	㉟	-	-	文啓洛	-
37.	湖亭和韻	-	7言律十序	㉟	-	-	文洪範	-
38.	和聲齋韻	-	7言律	㉟	-	和韻詩	朴龍秀	-
39.	台岩齋和韻序	-	7言律十序	㉟	-	和韻詩	金會均	-
40.	默愚翁和韻	-	7言律	㉟	-	-	陝川人河翁	-
41.	和聲齋韻	-	7言律	㉟	1853	-	金錫九	-
42.	聲齋序	-	序	㉟	未詳	聲齋號說	申錫謨	-
43.	和聲齋韻	-	7言律	㉟	-	和韻詩	金基洪	-
44.	謹次聲齋韻	-	7言絕3首	㉟	1808 戊辰	次韻詩	金環淳	-

45. 豊齋謹序	·	序	(5)	未詳	序		未詳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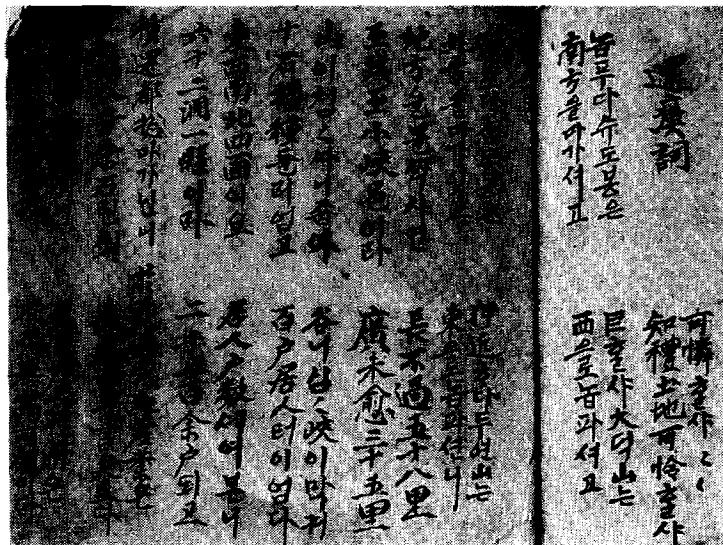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豐齋雜詞」는 한글가사 15편(이 중 두 편은 앞부분 낙장으로 失題)과 漢詩文 19편, 他人 詩文 11편을 수록하였다. 한글가사는 修身修德으로서 교훈성이 짙은 작품군과 당시의 사회상으로서의 三政의 문란 중에서도 還上의 병폐와 이웃끼리 不和한 현실을 고발내지 비판정신을 담은 작품군으로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樂憂記〉·〈還瘼詞〉에 나타난 還上의 병폐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 신랄함은 특기할 만하다.

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겉표지에 冊名이 없는 것을 「豐齋雜詞」로 볼 수 있는 근거 및 이 책의 내용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文洪範 작의 〈湖亭和韻〉의 序를 소개하여 이 항의 결론으로 삼는다.

“내가 우연히 이 마을에 이르러 비에 갇혀 유숙하게 되었다. 집 주인에게 古談책을 보여달라 한즉 심부름하는 아이로 하여금 한 책자를 가져 오게 하였는데 곧 豊齋雜詞였다. 한 편씩 살펴 보니, 민간의 還上 병폐며 집안에서 행해야 할 일이며 노소간에 분별해야 할 일이며 농사나 학문을 권장하는 일이며 주색을 멀리하고 敬誠해야 할 일로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에 마음이 훤히 통달한 豊齋翁이 아니고서야 어찌 감히 한 가지의 일, 반 마디인들 냐 사람이 있으랴. 나같이 어려서부터 배운 바 없는 사람으로 도 한 번 이들 글을 완미하매 저도 모르게 욕심에 막혔던 마음이 열리는 듯하니, 오늘날의 이 豊齋翁이야말로 어찌 후배들의 본이 되어 後學들을 개발시켜 줄 늙은이가 아니라?”(余偶到此村 滯雨留宿 使主人請見古談 則使家僮 持來一冊子 即豐齋雜詞也 檻覽一篇 民間還瘼事也 家間行用事也 老少分別事也 勸農勸學也 酒色敬誠事也 無非可言之事也 若非心竅洞達之翁 豈敢有一事半言之人哉 余以年少無學之輩 一次翫味 自不知茅塞之開 今世斯翁 豈非法後生 開來學之翁乎)

4. 〈還癒詞〉의 批判精神

이 항에서는 聲齋의 한글가사 중 〈還癒詞〉 전문을 소개하여 註解하고 이 가사에 나타난 對社會的 批判精神을 간략히 살피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行마다 일련 번호를 달고 起承轉結로 나누어 주해한다.



1. 可憐호샤	可憐호샤	知禮土地 ¹⁾	可怜호샤 ²⁾
2. 놈 푸 다	슈도봉 ³⁾ 은	南方을	마가서고
3. 巨 흘 샤	대덕산은	西으로	높파서고 ⁴⁾
4. 險 토 샤	승도봉 ⁵⁾ 은	北方을	마가있고
5. 狹近한다 ⁶⁾	두연산 ⁷⁾ 는	東으로	높파션니 ⁸⁾
6. 地方을	불싹시면	至殘至小 ⁹⁾	峽邑이라 ¹⁰⁾
7. 長不過	五十八里	廣未愈	三十五里

12 嶺南語文學(第22輯)

8. 山이첨첨 ¹¹⁾	싸니좁아 ¹²⁾	十石播種 ¹³⁾	들리업고 ¹⁴⁾
9. 谷이심심 ¹⁵⁾	峽이막켜	百戶居人	터이업다.
10. 東西南北	四面이요	六十二洞	一縣이라 ¹⁶⁾

- 1) 金陵郡 知禮, 곧 지례 지방(민)
 2) 가련하구나, 가련하도다.
 3) 修道山의 峰
 4) 높이 서고
 5) 三道峰
 6) 벼룻없이 가깝게 다가섰다.
 7) 斗淵山
 8) 높이 서니
 9) 지극히 잔약하고 작음
 10) 산골 읍이라
 11) 叠疊
 12) 땅이 좁아
 13) 열 섬지기 종자뿌릴
 14) 들이 없고
 15) 深深
 16) 知禮縣

11. 居人戶數	세여본니	二千三百	余戶되고
12. 積還都據 ¹⁷⁾	마가난니 ¹⁸⁾	一萬八千	余石릴쇠 ¹⁹⁾
13. 於我邑民 ²⁰⁾	產業은	無足可乎	言矣 ²¹⁾ 로다
14. 上戶云者 ²²⁾	所作農니	土不過於	一石 ²³⁾ 이라
15. 其下戶之	所耕은	不必舉而	可想 ²⁴⁾ 이라
16. 以如彼之	多穀 ²⁵⁾ 으로	分於若此	小民 ²⁶⁾ 한니
17. 毋論勢之	富貴 ²⁷⁾ 하고	各各受還	夥然 ²⁸⁾ 토다
18. 從其勢而	制等 ²⁹⁾ 한니	計自出其	均分 ³⁰⁾ 이라
19. []	[]	[]	[] ³¹⁾
20. 九十石於	一等이요	八十石於	二等이라
21. 七十石於	三等이요	六十石於	四等이라
22. 五十石於	五等이요	四十石於	六等이라
23. 三十石於	七等이라	二十石於	八等이라
24. 九等不作	八九石을	十等獨戸 ³²⁾	五六苞 ³³⁾ 라

17) 밀린 還穀(上) 모두
 18) 감당해 내니
 19) 餘石일세
 20) 우리 읍민

- 21) 無足可乎言矣, 죽히 말못할 처지
22) 부자라 이르는 집
- 23) 土不過於一石, 마지기 당 한 석지기
에 불과함
24) 不必舉而可想, 예 안 들어도 상상할 수 있다.
- 25) 以如彼之多穀, 저같이 많은 환곡으로
26) 分於若此小民, 이같이 적은 읍민에게
- 27) 母論勢之富貧, 빈부의 형세를 따지잖
고
28) 各各受還夥然, 각기 받은 환곡이 너
무 많도다
- 29) 從其勢而制等, 형세 따라 등급을 매
김
30) 計自出其均分, 속셈은 고루 나누는
데서 나왔다.
- 31) 別添한 2句의 종이가 떨어져 나감
32) 10등 독호(온전히 세금내는 집)
33) 대여섯 꾸러미

25. 春耕秋收	한 온후에	十月開倉	한 거곤니 ³⁴⁾
26. 封倉期限 ³⁵⁾	임시 急한 니	還民情地	可矜하다
27. 面間에	面任倉差 ³⁶⁾	洞內에	尊位檢督 ³⁷⁾
28. 曰夜로	동독 ³⁸⁾ 헤고	朝夕으로	점취 ³⁹⁾ 헤니
29. 밤이든들	쉬여보며	랄리난들 ⁴⁰⁾	로라풀가 ⁴¹⁾
30. 鳥不下於	公庭 ⁴²⁾ 이요	狗長吠於	夜門 ⁴³⁾ 이라
31. 一二三四	此等戶는	以其力而	堪當 ⁴⁴⁾ 이나
32. 內外族戚	許多中에	貧殘無依 ⁴⁵⁾	업슬손가
33. 再昨日에	族叔와셔	二三石	빌려가고
34. 又今朝에	척질 ⁴⁶⁾ 와셔	一二石	빌어가고
35. 鄉里面內	세의빈친 ⁴⁷⁾	日復日	챠자들어
36. 至五六斗	七八斗을	連續부결	빌여간니
37. 稍豆戶나 ⁴⁸⁾	훨은들사 ⁴⁹⁾	何以득호	불빈 ⁵⁰⁾ 이며
38. 開倉후	봉고전은	還上으로	근심되야
39. 寢食不安	신고한 기 ⁵¹⁾	貧여부니	동디로다 ⁵²⁾
40. 五六等	此戶人는	僅僅비남 ⁵³⁾	흘지라도
41. 牛犢吏어 ⁵⁴⁾	족축한 고 ⁵⁵⁾	田土척어 ⁵⁶⁾	금동한니 ⁵⁷⁾

42. 麻場에	쇼이비고	西疇에	밧이업네
43. 由還 ^의 ⁵⁸⁾	세감 ^하 야 ⁵⁹⁾	회을파라	등니는네 ⁶⁰⁾
44. 昨年一等	타든술 음	今春二等	戶가되고
45. 今春四等	밧든戶가	明歲五等	정영 ^하 다 ⁶¹⁾
46. 七八九等	十等戶난	雖遇풍세 ⁶²⁾	흐 야시나
47. 瓶餽에 ⁶³⁾	담은곡속 ⁶⁴⁾	還上에	경골 ^{하고} ⁶⁵⁾
48. 山菜豆葉 ⁶⁶⁾	죽을돌녀 ⁶⁷⁾	保身도명 ⁶⁸⁾	호조 ^{호니}
49. 豊年은	간덕업고	凶年니	특심 ^{하다} ⁶⁹⁾
34) 하겠구나		35) 債還 마감 기한	
36) 면 책임 창고 差使		37) 높은 분의 검사와 독려	
38) 董督, 감시 · 독촉 · 격려함		39) 儉飭, 구속해 다그침	
40) 날이 샌들		41) 놀아 볼까	
42) 鳥不下於公庭, 債還 독촉에 매를 휘 두르는 관청뜰이라 새조차 못 내림		43) 狗長吠於夜門, 상환 독려판이 밤마다 찾아들어 개는 늘 짖음	
44) 以其力而堪當, 자기 힘으로 감당		45) 가난하고 잔약해 의지할 데 없는	
46) 戚姪		47) 世誼貧親	
48) 稍饒戶나, 제법 부유한 집이나		49) 이 같으니	
50) 何以得乎不貧, 어찌 가난해지지 않으 랴		51) 辛苦하기	
53) 僅僅備納, 근근히 마련해 납부함		52) 貧與富가 同地로다	
55) 昨秋 ^하 고, 지난 가을 지내고		54) 牛犢賣어, 송아지 팔아	
57) 今冬 ^호 니, 이번 겨울 지내니		56) 田土 ^풀 어, 전토를 팔아(除)서	
59) 歲減하여		58) 由還瘦 ^의 , 환상의 병폐 때문에	
61) 丁寧 ^하 다, 틀림없다		60) 等級이 낮아지네	
63) 痘 ^하 고, 다 없어짐		62) 雖遇風歲, 비록 풍년을 맞음	
65) 죽을 달이다, 죽을 끓이다		64) 담은 곡식	
67) 特甚 ^{하다} , 아주 심하다.		66) 산나물과 콩잎	
69) 保身圖命, 몸을 보호하고 목숨을 도 모함		68) 保身圖命, 몸을 보호하고 목숨을 도 모함	

50. 餓寒을	불승한 야 ⁷⁰⁾	瘦妻와	약조들을 ⁷¹⁾
51. 압세우고	뒤세우고	踰山월슈 ⁷²⁾	가는정상
52. 이안니	可憐호가	還上만는 ⁷³⁾	타시로다
53. 年年니	봉고후에 ⁷⁴⁾	負티류리 ⁷⁵⁾	하는빅성
54. 無年無而	無月無요 ⁷⁶⁾	無面無而	無洞無라 ⁷⁷⁾
55. 石多할사 ⁷⁸⁾	쳐還곡은 ⁷⁹⁾	耗作 ⁸⁰⁾ 으로	제감하나 ⁸¹⁾
56. 헤마다	모이질어 ⁸²⁾	充립노적 ⁸³⁾	여산이요 ⁸⁴⁾
57. 數小하다	이준밍은 ⁸⁵⁾	一戶一隣 ⁸⁶⁾	증가입시
58. 헤마다	戶가줄어	毀傷家隣 ⁸⁷⁾	비석이라 ⁸⁸⁾
59. 슬프다	我邑民生	還痍에	골몰한 야 ⁸⁹⁾
60. 餓寒을	不免하고	廉恥을	不고하나 ⁹⁰⁾
61. 樂歲中	憂民 ⁹¹⁾ 되기	至冤코 ⁹²⁾	더욱분타 ⁹³⁾

70) 不勝하여, 못 이기어

71) 수칙한 아내와 弱子들을

72) 趟山越水, 산넘고 물건너

73) 환상이 많은

74) 封庫後에, 상환을 마감후에

75) 負戴流離, 지고 이고 떠돌아다님

76) 없는 해도 없고 없는 달도 없고

77) 없는 면이 없고 없는 동이 없다

78) 모래도 많이 섞었구나

79) 쳐 還穀은, 백성이 받는 환곡

80) 자연소모로 조작하여, 債還時에는 石

81) 除減하나, 수효를 덜어내어 줄임

當 1斗 5升의 耗穀을 가산하여 받아
들였음82) 耗가 늘어나, 耗穀은 회계에 든 국가
재정이 아님

83) 充溢露積, 차서 넘칠 정도로 쌓임

84) 산더미 같고, 모곡은 수령의 경상비

85) 殘氓, 피폐한 백성

85) 로 통례화 됨

86) 한 가구 한 이웃

87) 헐리는 이웃집

88) 非昔이라, 옛과는 다르다

89) 沫沒하여, 상환에 빠져 여유가 없음

90) 不顧하나

91) 태평 세월에도 근심하는 백성

92) 지극히 원통하고

93) 더욱 憤하다.

이상에서 〈還瘼詞〉의 전문을 起部(1行~10行)·承部(11行~24行)·轉部(25行~49行)·結部(50行~61行)로 나누어 註解를 달았다. 다음에는 이 네 단락을 차례대로 따라 이 가사에 나타난 당대 사회를 향한 고발·비판정신의 의의를 살피기로 한다.

먼저 起部는 序詞로 10行 20句이다. 이 가사는 三政(田政·軍政·還穀) 중에서도 還穀(還上)에 병(病)든 백성·사회의 참상을 金陵 知禮縣을 표집하여 고발하고 비판하였다. 起部 20句는 과다한 환곡에 병들 수밖에 없는 전제로서 먼저 縣의 지세를 노래하였다. 저자는 일성에 “可憐할 사 可憐할사 知禮土地 可憐할사”(註, 이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 철자로 고침, 이하도 같음)라고, 지례땅이 가련하다고 탄성부터 발하였다. 이는 과다한 환곡을 매년 느는 대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지례현의 형세가 딱한 데서 나온 탄성이다. 동에 斗淵山, 서에 大德山, 남에 修道峰, 북에 三道峯을 두고 남북 길이 58里요 동서 넓이 35里가 채 못되는 산골 현은 동리조차 고작 62洞이다. 게다가, 10石을 파종할 들이 없고 100戶가 살 만한 터조차도 없는 峽邑이다. 환곡에 시달리는 답답한 심정을, 사면이 산으로 막혀 전망조차 없는 지형과 대비시켜 아주 자연스럽게 서두를 마련하였고, 이는 다시 다음 단락으로 묘하게도 의미가 전달되었다.

承部는 14行 28句로 落句 둘이 있으나 의미상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 단락은 앞서의 단약한 지세를 전제로 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곡의 과다와 그 환곡을 분배받아야 하는 관계에 의한 等級 조정을 노래하여 起部의 의미를 더욱 점증시키고 심화시켰다. 還穀은 公債라고도 호칭되었고 還上이라고도 하여 그 음독은 ‘환자’였다. 이 환곡은 州縣의 수령 관장하여 충궁기의 농민에게 관곡을 대출하였다가 추수 후에 회수하는 일로 備荒制度였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조선 말엽에 이르러 田政·軍政과 더불어 소위 三政의 하나로서 國家財政의 수입을 염출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여 丁若鏞은 國家財用의 “半이 還上에 의존하고 있다”고까지 개탄하였

으며, 본디의 목적같은 배치되는 국가적 高利貸로 환곡이 변모하였다.¹⁾ 承部는 바로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즉, 2천 3백여 호되는 小縣에서 1만 8천여 석의 환곡을 감당해 내야 되는 현실을 폭로하였는데, 부잣집으로 불리는 소작농이 한 마지기 당 한 석의 생산도 못내니 그 이하는 일일이 말로 아니해도 상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같이 많은 환곡을 이같이 적은 백성(현민)에게 분배하는 데도 “無論勢之 富貧하고 각各受還果然토다”라고 탄식했다. 그 분배에서도 빈부의 형세를 감안하여 等級을 제정하기는 하였다 하나 “計自出其 均分이라”고 폭로하였는데 그 분배의 속셈은 빈부의 고려가 없는 고루 나누기(均分)란 것이다. 이는 곧 먹지 않아도 될 집까지 환곡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19行은 2句가 빠졌으나 아마 制等에 대한 근거 제시로 보이며, 1호 당 근 8石에 해당하는 환곡을 九十石 受還의 一等戶로부터 五六苞를 수환하는 十等戶가 가을에는 耗穀²⁾까지 부담해 償還해야 함을 노래하였다. 이상의 起部와 承部는 모순된 환곡제도에 병들지 않을 수 없는 知禮縣의 실상 즉, 좁은 땅·척박한 농토·적은 백성에 과단한 환곡은 도리어 규출이 아닌 원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드러내 보였다.

轉部는 25行 50句로 償還에 시달리는 민생고와 점차 농촌이 황폐해 가는 과정을 노래하였다. 환곡을 수납함에 면 동의 검독관들의 성화가 얼마나 심각했던 가는 “鳥不下於 公庭이요 狗長吠於 夜門이라” 한 대목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환곡은 본디 토지와 친척 즉 담보물과 보증인이 있는 根着者에게 대여하던 것이나, 잦은 흥년으로 耗穀조차도 못 갚는 경우

1) 宋贊植, 「還上取耗補用考」, 『歷史學報』 27집, 서울, 역사학회, 1965, pp. 443–444 참조.

2) 耗穀은 耗米·備耗·費耗·雀耗 등으로 별칭되어 利息의 의미는 없었으나, 元穀의 자연 소모를 보충하려던 의도와는 달리 每石에 一斗五升씩의 부가징수가 허용되었다.

가 생기고 대여한 환곡은 해마다 늘어 이식이 이식을 낳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도망자까지 생기니, “소위 隣徵 族徵 등의 온갖 가혹한 방법이 발동”³⁾됨으로 하여 관청의 뜰에서는 매질이 끊이지 않아 나던 새조차도 내리지 않는데, 밤마다 독려관이 집에 이르니 개짖는 소리가 끊일 날이 없다고 하였다. 이 한 구절이 함축한 의미는 환곡의 병폐를 단적으로 표현한 절조라 할 만하다. 31行에서 39行까지는 隣徵·族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상들로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 탓에, 부자는 가난한 賐의 등살에 “寢食不安 辛苦하기 貧與富니 同志로다”란 장탄식을 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중산층에 해당하던 집들조차도 소를 팔아 상환을 해야 하고 겨울은 전토를 팔아 지내야 할 지경이니, 마굿간엔 소가 비고 서쪽 두둑엔 밭이 없어져 갔다. 이러니, 환곡의 병폐로 가세는 점점 기울고 농촌이 폐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더구나, 소농가는 환곡 상환으로 지은 곡식을 모조리 다 없애고 산나물 콩잎으로 연명이나 하자 하니 “豐年은 간데 없고 凶年이 特甚하다”는 원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환곡제도의 극심한 문란과 농민의 고통, 농촌의 망해 가는 참상이 앞의 단락에서 보다는 혼격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었다. 저자는 〈修身訓〉에서 “嗟嗟아 小子들아 이너말숨 들어셔라 / 집에드나 門에나나 못술 음 도든中에 / 官長시비 말을마소 論官是非 흐는거시 / 民子의 道리로서 萬萬부당 훌뿐덜어 / 官家염문 들어가면 亡身피가 아니될가”라고 노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환곡의 문란상을 이같이 사실적으로 폭로하고 나아가 위정자를 겨냥한 신랄한 비판을 감행한 것은, 앞의 가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충절가의 후예로서 망해 가는 현실을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의분심의 발로에서라 하겠다. 시골의 한미한 선비로서 이같이 과감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짧은 날 산전수전하며 넓은 세상을 두루 답사한 체험이 있었던 탓이기도 하다.

3) 宋贊植, 같은 책, p.483.

結部는 12行 24句로 〈還瘼詞〉의 대단원이다. 50行에서 52行에서는 穀주림을 견디다 못해 처자를 이끌고 고향을 둉쳐 산넘고 물건너 걸식길에 나서는 가련한 백성은 還穀의 과다로 인해 병든 피해자들임을 노골적으로 폭로하였다. 남부 여대하고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 생기는 해(年)가 없고 달이 없으며, 아니 생기는 면이 없고 마을이 없음을 폭로한 사실은 知禮 한 縣만의 참상이 아니라 곧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조선의 망국 상임을 충분히 확대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더구나, 55行에서 58行까지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탐관오리의 위정자들에 의해 국가의 救恤策이 誅求策으로 둔갑했음을 고발하고 벼판한 대목이다. 백성에게 대여하는 환곡은 심지어 돌멩이(모래)까지 섞으면서 상부에는 耗穀이 많다고 조작하여 그 수효를 감하나, 실제로 백성에게 받아들이는 耗穀은 해마다 늘어나서 산처럼 쌓이니, 이 곡식이 다 관리의 뜻인 것이다. 일찌기 朴 冠과 같은 분들이,

“義倉의 설치는 민생을 아롭게 하기 때문이다. 기왕에는 비록 耗米法이 없었으나 還上을 量入할 때에는 守使들이 民隱을 들보지 아니하고 高重으로 斗量하여 그 餘斛을 사용하는 자가 종종 있었다. 지금 만약 一石에 耗米三升을 加收한다면 다만 重斂者의 음모만 도울 뿐이니 利가 인민에게 미치지 못하여 서 害는 이미 따르게 될 것이다. 또한 還上은 秋冬에 받아서 春夏에 還給하니 그 耗損됨이 또한 많지 않다. 耗米法이 비록 朱文公이 제정한 것이지만 朱文公같은 사람이 守使이 된다면 모르되 만약 朱文公의 德은 없고 다만 加斂의 法만 있다면 반드시 州郡의 守使 가운데에 어찌 이 때문에 人民에 害를 끼칠 자가 없겠는가?”⁴⁾

라고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東學亂같은 농민혁명이 발

4) 世宗實錄 卷24, 世宗 5年 11月 丙戌條, 宋贊植, 앞의 책, p. 455에서 再引함.

생하는 전초는 진작에 환곡의 문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해마다 이웃이 줄고 농촌은 황폐해져, 피폐한 백성은 굶주리고 땀을 면하지 못하고 禮儀廉恥조차 돌아볼 줄 모르니, 太平歲月 중에 근심하는 백성이 되기 지극히 원통하고 더욱 분하다고 끝을 맺았다. 樂世中의 豪民을 만든 이는 과연 누구인가? 61行에 담긴 작자의 寂憤은 일개 知禮小邑民의 自歎이 아니라, 亡國的 痛苦를 앓던 朝鮮農民의 怨聲이요 일신의 행복을 추구해 國亡을 조장하는 爲政者들을 향한 저항적 비판의 소리였다. 전술한 文洪範의 말대로 “만약에 마음이 훤히 통달한 豐齋翁이 아니고서야 어찌 감히 한 가지의 일, 반 마디인들 낼 사람이 있으랴!”

豐齋 張信綱의 〈還癡詞〉는 환곡제도의 병폐를 고발·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차원 높은 寓意的 手法으로서 당대 사회에 만연했던 不條理와 不正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는데 그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甲午東學革命이 발발하기 전에 과감히 이같은 가사를 남긴 사실은 이 가사로 하여금 譏謠的인 性格을 짚기도 하였다고 하겠다.

III. 맷는 말

이상에서, 「豐齋雜詞」의 저자 張信綱의 가계 및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이 가사집에 수록된 작품을 일람하였으며, 작품으로서 한글가사 〈還癡詞〉의 전문을 註解를 달아 소개하고 거기 나타난 대사회적 批判精神을 고찰하였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 張信綱의 字는 尤五요 號는 豐齋인데, 仁同張氏 鳳頴派의 후예로 1779년 金陵郡 大德面 蓮花里에서 태어나 같은 면의 德山里에서 78세를 일기로 1856년에 별세한 선비다.

豐齋의 家系는, 1세 張金用 이후 18세 張潛에 이르러 일파가 형성되어

그는 凤願派祖가 되고, 20세에는 張天翰·景翰·光翰·龍翰·鳳翰·鴻翰 등의 6兄弟가 태어나 이들은 당대에 學問·操行·文章·忠節로 士林의 추승을 받아 봉상파의 가풍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었다. 특히, 이들 6형제 중 張鴻翰은 金陵派祖가 된 분이며, 그의 文章과 忠節은 진작부터 향사에 올랐다. 이 분의 후손으로는 官界에서나 學問上에 혁혁한 분은 없으나 忠節家의 후예란 자긍심은 가풍으로 世傳되었고, 문학적 재능은 혈통으로 유전되어 龔齋가 문학에서 귀중한 작품을 남기었다.

龔齋의 생애는 기록이 미비해 소상히 알 수는 없으나, 단편적인 몇 가지를 종합해 보면 천성이 寬厚仁慈하고 孝友가 겸비하였으며, 文學에 심히 篤實(世譜)하였다고 하겠다. 그는 양반의 후예로 태어났으나 6세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므로 가세가 기울어져 본인의 술회대로 학문에만 전념하여 벼슬길로 나설 형편이 못되었다. 20대 초반에는 잠시간이나 書堂을 경영하기도 하였으며, 상업에 종사하여 24세부터 33세까지는 소금·어류·약초·담배 판매를 위해 介上浦·馬上浦·全州·서울 등지의 대처를 두루 다녀 세상 보는 눈을 크게 넓혔다. 이 뒤로도 몇 년을 더 상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본업인 농사에 전념하였다. 고향에 안착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부터 유학·문학 공부도 열심히 병행하였으며, 문학에는 천부적인 자질을 절로 발휘해 갔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글가사 작품 15편을 남긴 사실은 주목할 일이며, 自號에 귀머거리龔字를 스스로 택했으면서도 글러가는 세태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의분을 표현이 훨씬 진솔하고 자재로운 한글을 빌어 표출하였다고 본다.

「龔齋雜詞」는 필사본인 雜著다. 총 135면인 이 책에는 자작의 한글가사 15편(두 편은 낙장으로 失題)과 漢詩文 19편을 비롯해 남이 써 준 和韻詩와 序文 11편 등 도합 45편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龔齋의 작품은 총 34편인데 한글가사 15편을 남긴 사실은 국문학상 귀한 유산으로 남았다.

그 문학적 가치 문제는 전 편을 심도있게 분석한 뒤의 평가를 기다려야 할 일이지만, 우선 작품의 양적인 면에서는 풍성한 수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글가사는 教訓家系 5편, 警世歌系 5편, 紀行歌系 1편, 述懷歌系 2편, 讀揚歌系 2편 등인데, 이 중에서도 경세가계의 對社會的 告發精神과 批判精神은 조선조 말기의 사회상을 노래로 형상화한 점에서 歌辭文學에 귀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還摸詞〉는 起承轉結의 구성을 취해 구조상의 정체미를 보여 주었고, 그 표현력에서도 함축미가 풍부한 곳이 많아 그 문학적 수준이 높음을 알게 하였다. 더구나, 이 가사에 나타난 작가의식은 단순한 세태의 재현 내지 고발에만 그치지 않고, 개혁을 염원하는 濟世的 豪國念으로 위정자를 향한 寓意의이나마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어 이같은 정신을 수용한 가사문학 작품은 그리 흔치는 않으리라 본다.

본 고찰은 무명 작가인 龔齋 張信綱과 그의 유작인 「龔齋雜詞」를 국문 학계에 소개함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기에 특히 한글가사 15편에 대한 문학적 가치는 작품 자체의 분석은 물론 다른 많은 가사들과도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에 평가될 문제라 본다.